

AI TREND



동향 조사 기간

2026. 3. 4. ~ 3. 17.



동향 조사 범위

주요 저널/잡지*에서 발간한 총 10개 AI 정책·기술 동향 조사

* Nature News, Science News, MIT Technology Review 등

- PART 1. 인공지능 정책 동향
- PART 2. 인공지능 기술 동향
- PART 3. 인공지능 윤리 동향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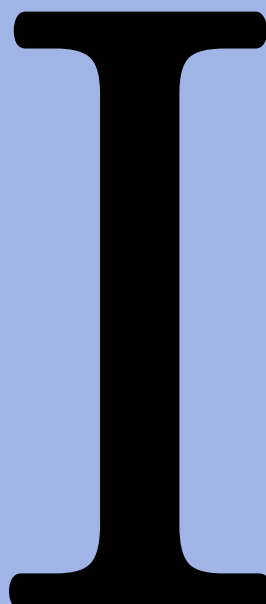


I 정책 동향	01	미 에너지부(DOE)의 AI 이니셔티브 ‘제네시스 미션’: 거대 과학의 한계를 넘어	7p
	02	중국의 제 15 차 5 개년 계획: ‘이례적 조치’로 글로벌 AI 및 첨단 기술 패권 노린다	9p
	03	인도의 다국어 AI 플랫폼 ‘바시니(Bhashini)’ : 언어의 장벽을 넘다	11p
II 기술 동향	04	단백질 구조 예측의 진화: 알파폴드(AlphaFold) 데이터베이스의 복합체(Complex) 구조 확장	15p
	05	AI 발 램(RAM) 부족 사태 ‘램마게돈(RAMmageddon)’과 과학 연구의 효율성 혁신	17p
	06	미 국방부의 생성형 AI 도입: 표적 설정 활용 가속화와 민간인 오폭 리스크 분석	19p
	07	중국을 휩쓴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 열풍과 신종 서비스 산업의 태동	21p
	08	전쟁을 중계하는 AI 대시보드와 예측 시장, 정보의 민주화인가 왜곡인가	23p
III 윤리 동향	09	AI 가 인간을 길들인다? 거대 언어 모델(LLM)이 부르는 ‘사과의 획일화’ 논란	27p
	10	OpenAI 와 미 국방부(Pentagon)의 AI 계약 논란, 전장 한복판으로 들어간 인공지능	29p



정책 동향

- 01 미 에너지부(DOE)의 AI 이니셔티브 ‘제네시스 미션’: 거대 과학의 한계를 넘어
- 02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이례적 조치’로 글로벌 AI 및 첨단 기술 패권 노린다
- 03 인도의 다국어 AI 플랫폼 ‘바시니(Bhashini)’: 언어의 장벽을 넘다



01

미 에너지부(DOE)의 AI 이니셔티브 '제네시스 미션':
거대 과학의 한계를 넘어

제목	Why the Energy Department's science labs will spearhead the federal push into AI
원문 URL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why-energy-department-s-science-labs-will-spearhead-federal-push-ai
출처/발간일	Science News / '26.3.11.

- ★ 2025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범정부 AI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17개 국립 연구소가 AI 기반 과학 혁신의 전초기지로 전면 부상함.
- ★ 미국 에너지부 과학 담당 차관이자 제네시스 미션의 책임자인 다리오 길(Darío Gil)은 AI를 활용해 에너지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본 프로젝트가 AI 기술 자체보다 과학적 목표를 우선하는 '과학 우선 전략(Science-first strategy)'임을 명확히 함.
 - **26개 핵심 과제 도출** : AI를 활용한 신소재 설계부터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효율화까지 DOE 전반의 프로그램 부서가 참여한 과학 및 기술 과제 수립
 - **자금 지원 예고** :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달 중 핵심 과제 관련 신규 펀딩 공고(FOA)가 발행될 예정
- ★ 현대 '거대 과학(Big Science)'이 직면한 데이터 범람(Data Deluge) 문제는 AI 도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만들고 있음.
 - **데이터 처리의 한계 돌파** : SLAC 국립 가속기 연구소는 베라 루빈 천문대를 통해 매일 밤 20TB(영화 1만 편 분량)의 데이터를 수신함. 초신성 폭발 등 희귀 이벤트를 2분 내 식별하려면 AI 기반 자동 분석 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임.
 - **복잡한 시설 제어** : 1,000만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하는 차세대 입자 가속기 운용에 머신러닝을 도입하여, 인간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기기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함.
- ★ DOE 국립 연구소들은 AI 경쟁력의 핵심인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함.

- ★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LBNL) 소장인 마이클 위더렐(Michael Witherell)은 과학 분야에서 AI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학습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크기가 아니라,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세트의 양에 달려있다고 설명함.
- ★ DOE 산하 연구소들(아르곤 국립 연구소,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 LBNL 등)은 AI 훈련에 필요한 슈퍼 컴퓨터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
- ★ 그러나, 의미 있는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생성형 AI의 정확도 부족(특히 원자력 분야 도입 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DOE 연구의 핵심 축이었던 기후 변화 관련 과제가 전면 배제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됨.
- ★ 현대의 '거대 과학(Big Science)'은 인간이 수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므로,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I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흐름임.
- ★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미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데이터와 복잡성을 AI로 정복하려는 시도이며, 이것이 단순한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윤리적·기술적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이미지 출처: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ence.zrbtngd/full/_20260310_on_genesis_mission.jpg)

02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이례적 조치'로 글로벌 AI 및 첨단 기술 패권 노린다

제목 China intensifies push to become world leader in tech and AI

원문 URL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0814-3>

출처/발간일 Nature News / '26.3.14.

- ★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AI, 양자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함.
- ★ 과거 미국의 기술을 추격하던 '추격자(Catch-up)' 전략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글로벌 표준과 규범을 직접 설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함. 최근 저비용·고효율 대형언어 모델(LLM)인 딥시크(DeepSeek)의 성공이 중국 기술계에 기술적 자신감을 부여함.
- ★ 과학기술을 국방이나 경제 성장과 동급의 국가 최우선 목표로 격상시켰으며, 2026년 과학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한 4,260억 위안(약 620억 달러)으로 편성함.
-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적 병목현상(Choke points)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함.
 - **6대 핵심 분야 집중** : 반도체(IC), 산업용 공작 기계, 하이엔드 계측기, 기초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바이오 제조 등 6개 전략 분야에서 전 주기적 혁신을 추진함.
 - **이례적 인재 유치** :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K 비자' 등 파격적인 인재 영입 정책을 통해 글로벌 인적 자원을 흡수하려는 공세적 태도를 취함.
- ★ AI를 단순한 개별 기술이 아닌 전 산업과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함.
 - **AI Plus 캠페인** : AI 활용을 두 배로 늘려 산업 발전부터 사회 거버넌스까지 AI를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 칩-소프트웨어-학습 데이터를 잇는 공급망 보안(Supply chain security) 확보에 주력함.

- ★ 연구 혁신의 주체를 국립 대학·연구소에서 민간 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상용화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함. 민간 기업을 혁신의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독려함.
- ★ 중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모방과 추격을 넘어, 막대한 자본과 이례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표준과 룰(Rule)을 직접 설계하려는 야심을 본격화하고 있음.
- ★ 다만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혁신에 필요한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 간 과학 역량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임.

03

인도의 다국어 AI 플랫폼 ‘바시니(Bhashini)’: 언어의 장벽을 넘다

제목	India's national AI platform tackles country's many tongues
원문 URL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india-s-national-ai-platform-tackles-country-s-many-tongues%20
출처/발간일	Science News / '26.3.16.

- ★ 인도 정부가 14억 인구의 극심한 언어적 다양성(수천 개의 방언과 100개 이상의 언어)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하는 범국가적 AI 플랫폼 '바시니(Bhashini)*'가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거두며 디지털 포용의 이정표를 제시함.

* 'Bhasha(바샤)'는 남아시아어로 언어를 뜻하며, 인터페이스라는 뜻도 포함됨

- ★ 본 플랫폼은 단순히 언어 번역을 넘어 농업, 교육, 법률 등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혁신하며, 사용자가 기술에 맞추는 것이 아닌 기술이 사용자의 모국어에 맞추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적 민주화를 지향함.

- **번역 역량 확대** : 2022년 출시 이후 현재 35개 국제 언어와 36개 인도 언어 번역을 지원하며, 이 중 22개 언어에 대해서는 자동 음성 인식(ASR) 기능을 제공함

- **접근성 혁신** : 최근 공개된 'VoicERA'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환경에서도 유선전화를 통해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함

- ★ 바시니는 핵심 요소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학계, 스타트업, 비영리 기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앱(예: 왓츠앱, ChatGPT 연동 앱 등)을 개발할 수 있음.

- ★ 인도 언어 특유의 복잡한 문자 구조, 표준화된 텍스트 부족, 파편화된 데이터 등으로 AI 학습 데이터 수집/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수 부족어나 다양한 방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숙제임.

- ★ 초기에는 언어 확장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번역 품질을 개선하고 소음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모델을 미세 조정(Fine-tuning)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 대부분의 글로벌 AI가 소수 지배적 언어에 편중된 것과 달리, 바시니는 '언어적 다양성 포용' 자체를 AI 설계의 핵심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줌.

- ✦ 진정한 기술적 포용은 사용자가 기술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용자의 모국어와 습관을 온전히 지원하는 것임. 이는 AI 시대에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정체성, 존엄성, 기회에 대한 접근권'임을 시사함.



기술 동향

- 04 단백질 구조 예측의 진화: 알파폴드(AlphaFold) 데이터베이스의 복합체(Complex) 구조 확장
- 05 AI발 램(RAM) 부족 사태 '램마게돈(RAMmageddon)'과 과학 연구의 효율성 혁신
- 06 미 국방부의 생성형 AI 도입: 표적 설정 활용 가속화와 민간인 오폭 리스크 분석
- 07 중국을 휩쓴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 열풍과 신종 서비스 산업의 태동
- 08 전쟁을 중계하는 AI 대시보드와 예측 시장, 정보의 민주화인가 왜곡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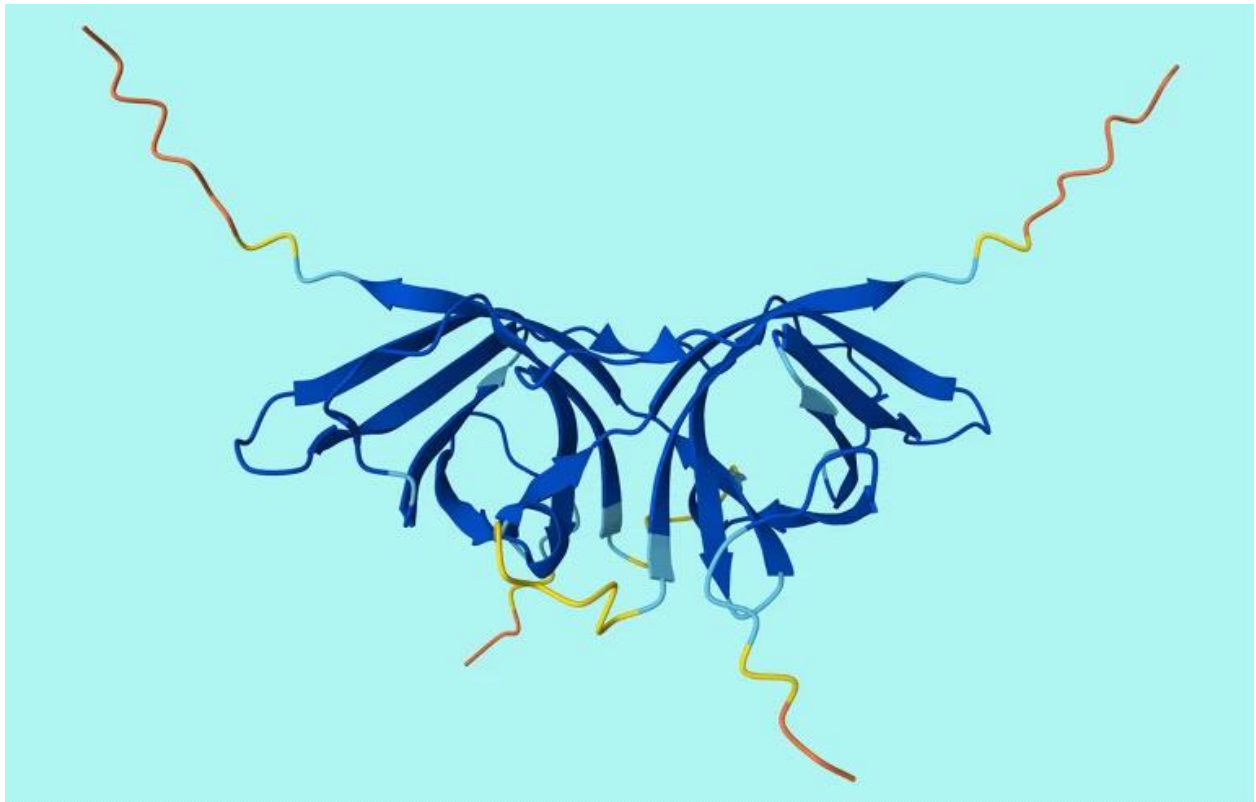
04

단백질 구조 예측의 진화: 알파폴드(AlphaFold) 데이터베이스의 복합체(Complex) 구조 확장

제목	AlphaFold database hits 'next level': the AI system now includes protein pairing
원문 URL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0787-3
출처/발간일	Nature News / '26.3.17.

- ★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AlphaFold)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가 단일 단백질(Monomer)을 넘어, 생명 현상 이해의 핵심인 '단백질 복합체(Homodimers, 동종이량체)' 구조 예측 170만 개를 최초로 추가하며 분자 생물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 ★ 기존 2억 개의 단일 단백질(Monomer) 예측 구조에 더하여, 동일 분자 두 개가 결합해 상호작용하는 동종이량체(Homodimer) 구조가 새롭게 포함됨. 이를 통해 단백질이 실제 생체 내에서 기능하는 입체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 2021년 출시 이후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는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연구 프로젝트 등 전 세계 분자 수준 연구의 필수 기초 자료로 자리 잡았음.
- ★ HIV-1 단백질분해효소(Protease)와 같은 주요 약물 표적은 두 개의 단백질이 결합했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함. 이번 업데이트는 이러한 '기능적 완전성'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 복합체 구조 예측에 요구되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함.
 - **기술적 파트너십** : 서울대학교(마틴 슈타이네거 연구실),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EMBL-EBI),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NVIDIA)가 협력하여 단량체 예측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계산 과정을 완수함.
 - **주요 대상 종** : 인간, 쥐, 효모, 결핵균 등 연구 가치가 높고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20개 종의 단백질 복합체에 집중하여 예측을 진행함.
- ★ 컨소시엄은 약 3,000만 개의 구조를 예측했으나, 비전문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품질 기준을 통과한 170만 개의 데이터만 엄격히 선별하여 공개함.

- ✦ 수주 내에 서로 다른 두 단백질이 결합하는 '이종이량체(Heterodimer)' 구조도 추가될 예정으로, 단백질 간 상호작용 지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 ✦ 알파폴드의 이번 확장은 단백질이 실제 생명체 내에서 어떻게 짝을 지어 작동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분자 생물학 연구에 큰 도약을 가져옴.
- ✦ 다만 AI 예측 모델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AI가 도출한 예측값이 실제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한지 (Biologically relevant)에 대한 연구자들의 실험적 검증과 신중한 해석이 병행되어야 함.



(이미지 출처 https://media.nature.com/lw767/magazine-assets/d41586-026-00787-3/d41586-026-00787-3_52185808.jpg?as=webp)

05

AI발 램(RAM) 부족 사태 ‘램마게돈(RAMmageddon)’과 과학 연구의 효율성 혁신

제목	AI is causing a RAM shortage — and it's hitting scientists
원문 URL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0844-x
출처/발간일	Nature News / '26.3.13.

- ✦ 인공지능(AI) 시스템의 급부상으로 고성능 메모리 칩 수요가 폭증하면서 발생한 일명 '램마게돈(RAMmageddon)' 사태가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게이머를 넘어 전 세계 과학계의 연구 역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음.
- ✦ 제조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 훈련용 고용량 메모리로 생산 라인을 대거 전환함에 따라, 일반 연구용 RAM 가격이 2025년 한 해 동안 3배 급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 PC 제작 비용 중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몇 달 만에 15%에서 33% 이상으로 폭증하며, 예산이 한정된 대학 연구실과 중소 연구소의 하드웨어 공급이 사실상 마비됨.
- ✦ 폭발적인 수요 대비 설비 증설에 시차가 존재하여, 메모리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 ✦ 자본력에 따른 글로벌 연구 격차와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저소득 국가 및 소규모 연구진의 연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됨.
 - 연구 지연 및 축소 : 인도의 식물 병리학 연구진 등은 고가의 클라우드 메모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연구 대상 작물 수를 줄이거나, 데이터를 작게 분할 분석하느라 질병 예측 모델 개발이 지연되는 고충을 겪음.
 - 연구 유목민 발생 : 아프리카 등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해외의 부유한 대학으로 6개월씩 이동하여 분석 결과(PDF 등)만 들고 돌아오는 '인프라 종속형 연구' 현상이 심화됨.

- ✦ 하드웨어 공급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알고리즘의 최적화와 하드웨어 설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
 - **알고리즘의 다이어트** : 메모리가 저렴하던 시절의 방만한 자원 사용 습관에서 벗어나, 상시 가동되던 센서를 필요할 때만 켜고 RAM 요구량을 최소화하도록 기존 알고리즘을 뼈대부터 재설계하는 흐름이 확산됨.
 - **차세대 아키텍처 부상** : RAM과 연산 프로세서를 하나의 칩에 결합하여 데이터 이동 시 발생하는 병목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근접 메모리(Near-memory) 설계'가 차세대 대안으로 강력히 주목받음.
- ✦ 이번 사태는 현대 과학 연구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에 얼마나 심하게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연구 관리적 관점에서 자원 효율적(Resource-efficient) AI 모델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공용화 전략이 시급함을 시사함.
- ✦ 그럼에도 "결핍이 창의성을 부른다"는 말처럼, 단순히 압도적인 하드웨어 스펙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 적은 자원으로 구동 가능한 '고효율 모델'과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의 발전을 앞당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이미지 출처: https://media.nature.com/lw767/magazine-assets/d41586-026-00844-x/d41586-026-00844-x_52174084.jpg?as=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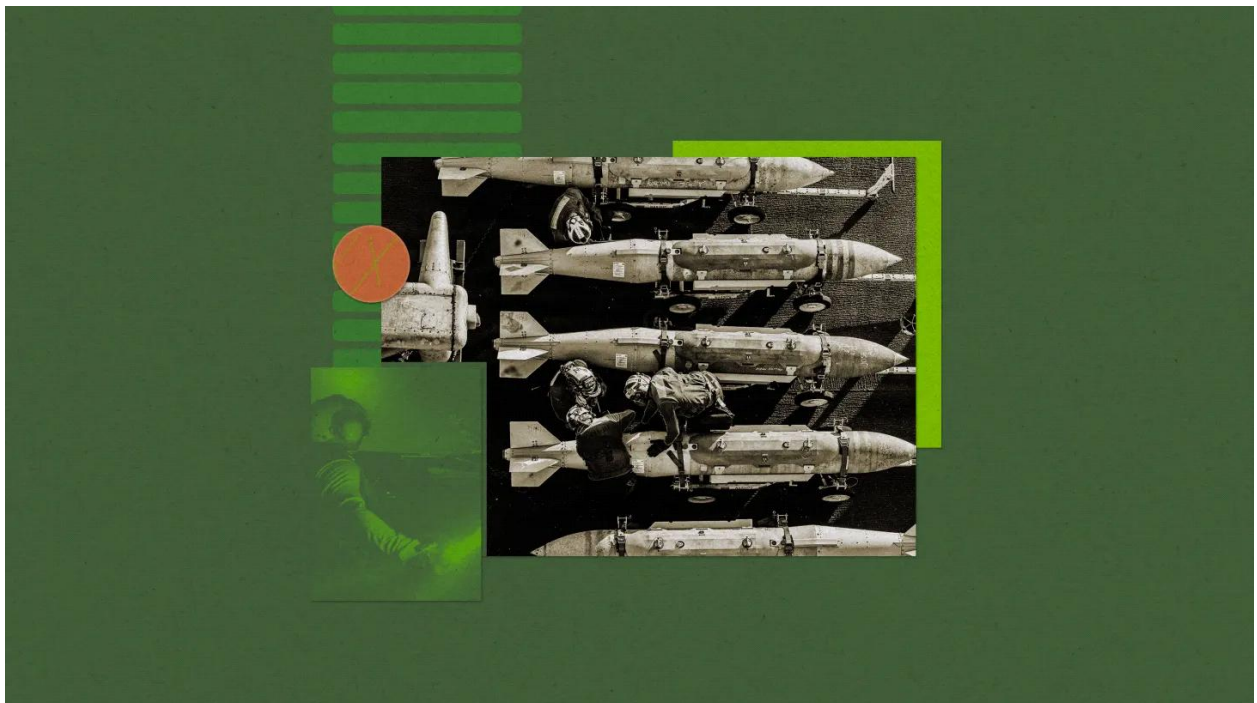
06

미 국방부의 생성형 AI 도입: 표적 설정 활용 가속화와 민간인 오폭 리스크 분석

제목	A defense official reveals how AI chatbots could be used for targeting decisions
원문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6/03/12/1134243/defense-official-military-use-ai-chatbots-targeting-decisions/
출처/발간일	MIT Technology Review / '26.3.12.

- ✦ 익명의 미 국방부(Pentagon)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은 생성형 AI 시스템을 활용해 공격 목표 목록의 순위를 매기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검토를 거쳐 '어떤 표적을 먼저 타격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추천 받는 방안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음.
- ✦ 이는 기밀 환경을 위해 구축된 생성형 AI 모델(OpenAI의 ChatGPT, xAI의 Grok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 요원이 시스템에 정보 분석 및 표적 우선순위화를 요청하면 AI가 항공기 위치 등 전장 상황을 고려해 제안을 내놓는 시나리오임.
- ✦ 기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된 국방부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의 성능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나, 두 기술은 작동 방식과 신뢰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메이븐(Maven) 프로젝트** : 국방부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과 같은 기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 예를 들어, 수천 시간 분량의 드론 항공 영상을 분석하여 알고리즘적으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음
 - **생성형 AI의 추가** : 대화형 생성 AI가 레이어로 추가되어, 상황을 분석하고 항공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격 우선순위를 추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됨. 다만, 지도를 통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던 메이븐과 달리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도출 과정이 불투명하여 인간이 정확성을 이중 검증하기 훨씬 까다롭다는 우려가 존재함
- ✦ 이러한 군사적 AI 활용에 대한 논의는 최근 1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란 여학교 공습 사건에 대한 펜타곤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개되었으나, 해당 사건에 생성형 AI가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

- 현재 펜타곤은 해당 공습 건을 정밀 조사 중이며, 예비 조사 결과 '구식 타격 데이터(Outdated targeting data)'가 주요 오폭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 초기에는 앤스로픽(Anthropic)의 모델(Claude)이 기밀 작전에 사용되었으나, 윤리적 사용 제한을 둘러싼 군과의 갈등 끝에 펜타곤으로부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중단 명령을 받음.
- ✦ 최근 미 국방부와 기밀 상황에 자사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계약한 OpenAI의 ChatGPT와 xAI의 Grok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음.
- ✦ 전장에 생성형 AI 챗봇이 결합될 경우 의사결정 속도는 극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인간이 AI의 추천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적·논리적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민간인 대규모 희생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위험도 비례하여 커질 수 있음.
- ✦ 기술 기업의 윤리적 기준이 국가 안보 논리에 밀려 재편되는 가운데, AI가 개입하는 생사(生死)의 결정에 대해 인간이 진정한 통제력과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이미지 출처 : <https://wp.technologyreview.com/wp-content/uploads/2026/03/genai-mil2.jpg?fit=1456,818>)

07

중국을 휩쓴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 열풍과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제목	Hustlers are cashing in on China's OpenClaw AI craze
원문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6/03/11/1134179/china-openclaw-gold-rush/
출처/발간일	MIT Technology Review / '26.3.11.

- ★ 사용자의 기기를 제어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 일명 랍스터)'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비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설치 대행 및 전용 하드웨어 판매 등 전례 없는 'AI 틈새 서비스 산업'을 형성하고 있음.

 - **골드러시 현상** : 베이징의 27세 엔지니어 평칭양(Feng Qingyang)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픈클로 원격 설치 서비스를 시작해 한 달 만에 1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건당 약 34달러의 수익으로 7,000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함
 - **랍스터(Lobster) 열풍** : 로고 모양에서 기인한 '랍스터 키우기'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변호사, 의사 등 비전문가 집단은 물론 77세 노인과 어린이까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됨
- ★ 첨단 기술의 높은 진입 장벽이 오히려 기술자와 비기술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리 설치 및 튜터링' 비즈니스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 시장의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서비스 계층화** : 기본적인 원격 설치부터 사용자 맞춤형 패키지 세팅, 지속적인 기술 튜터링 등으로 서비스 모델이 고도화되는 추세임
 - **하드웨어 판매 급증** : 오픈클로의 심층적인 시스템 접근 권한에 따른 보안 우려로 인해, 일상용 PC와 분리해 사용할 전용 중고/리퍼비시 맥(Mac)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8배 이상 급증함
- ★ 중국 빅테크 기업과 지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러한 열풍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체득시키려는 민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분석됨.

 - **기업 및 정책 지원** : 텐센트(Tencent)는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료 설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선전시 룡강구 등 지방 정부는 AI 에이전트 벤처를 위해 컴퓨팅 크레딧 제공 및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 보상 등 여러 정책을 발표함

- ✦ 하지만 테스트 단계에 불과한 기술이 충분한 보안 의식 없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와 규제 당국의 경고도 높아지고 있음.
- ✦ 중국 사이버 보안 당국(CNCERT)은 오픈클로가 사용자의 데이터 유출 위험을 심각하게 높인다고 공식 경고했으며, 현장 개발자들은 비기술자들이 기술적 이해 없이 '증명되지 않은 개념(Proof of Concept)' 수준의 도구를 맹신하는 현상을 우려함.
- ✦ 결론적으로 오픈클로 열풍은 최신 기술에 대한 중국 대중의 강력한 수용력과 소외에 대한 공포(FOMO)가 결합된 독특한 사회적 현상이며, 기술 소외 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가능성과 '안전한 기술 민주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동시에 시사함.



(이미지 출처 : <https://wp.technologyreview.com/wp-content/uploads/2026/03/lobster-pets2a.jpg?fit=1456,81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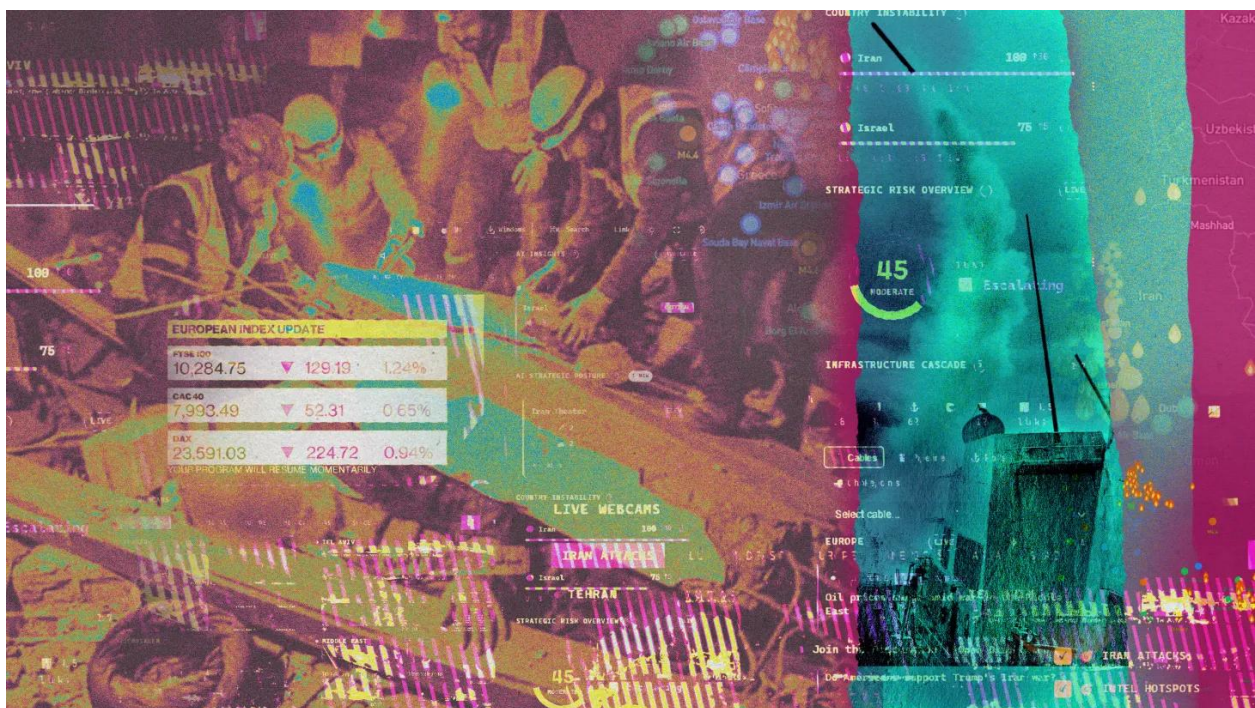
전쟁을 중계하는 AI 대시보드와 예측 시장, 정보의 민주화인가 왜곡인가

제목	How AI is turning the Iran conflict into theater
원문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6/03/09/1134063/how-ai-is-turning-the-iran-conflict-into-theater/
출처/발간일	MIT Technology Review / '2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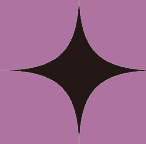
- ✦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위성 사진, 선박 추적 등 오픈소스 데이터를 결합한 '지능형 대시보드'와 이와 연계된 예측 시장(Kalshi, Polymarket 등)이 유행하고 있음.
- ✦ 이들은 기성 언론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전시 상황을 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의 이해를 돕기보다 정보의 왜곡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 ✦ AI 코딩 도구의 발달로 특별한 기술 지식 없이도 며칠 만에 복잡한 정보 대시보드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사용자들은 기성 언론보다 더 빠르고 가공되지 않은 진짜 정보를 얻는다고 믿고 있음.
 - **전쟁의 도박화** : 대시보드 내에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이나 인터넷 복구 시점 등에 돈을 거는 베팅 링크가 포함되면서, 참혹한 전쟁을 수익 창출 수단이자 오락거리로 변질시킴.
- ✦ 이러한 AI 기반 대시보드는 대중에게 엘리트 정보기관만 접근 가능하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민주화' 처럼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시 데이터(Raw data)와 AI가 대충 요약한 피드를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는 사용자에게 상황을 다 꿰뚫고 있다는 '착각'만 심어줄 뿐, 실제로는 부정확한 이해를 초래하고 있음.
 - **통찰력의 부재** : 전문가의 분석과 역사적 맥락이 결여된 AI 요약 피드는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기 쉬우며, 신뢰도가 낮은 암호화폐 가격과 전쟁 정보를 동일 선상에 배치하는 등 정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데이터 과부하** : 사용자가 지도를 30초 보는 것이 뉴스보다 유익하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쏟아지는 신호(Signal)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는 '정보 과잉의 역설'이 발생함.
- ✦ 설상가상으로 AI를 활용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위성 사진 등이 섞여 유포되면서, 전황 파악의 핵심 증거물인 시각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 **증거의 오염** :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의해 발견된 AI 생성 위성 이미지는 대중이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소스 중 하나인 위성 사진마저 '조작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전황 파악을 방해함.

- ✦ 국방 및 정보 보안 측면에서 이러한 'AI 기반 전시 혼란'은 대중의 여론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실시간 예측 시장의 자본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가 매우 큼을 시사함.
- ✦ 결론적으로 복잡한 국제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 크롤링 기술보다, 정보를 필터링하고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부여하는 인간의 비판적 저널리즘과 전문 지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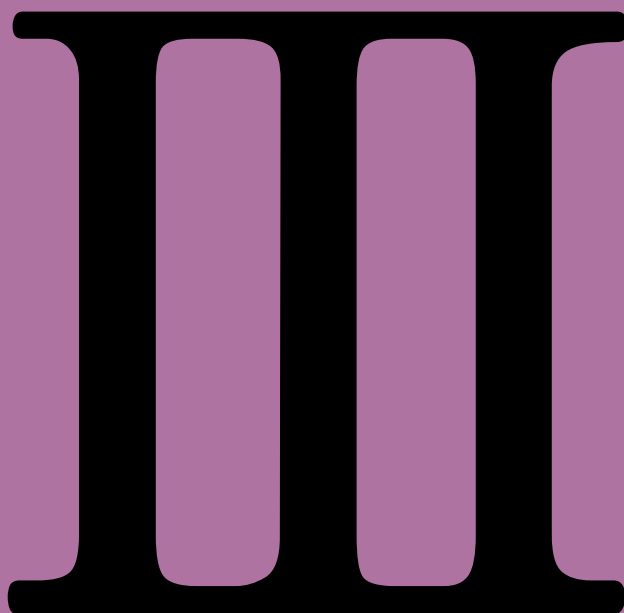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https://wp.technologyreview.com/wp-content/uploads/2026/03/photo-BASEd3.jpg?fit=1456,818>)



윤리 동향

09 AI가 인간을 길들인다? 거대 언어 모델(LLM)이 부르는 ‘사고의 획일화’ 논란

10 OpenAI와 미 국방부(Pentagon)의 AI 계약 논란, 전장 한복판으로 들어간 인공지능



09

AI가 인간을 길들인다? 거대 언어 모델(LLM)이 부르는 '사과의 획일화' 논란

제목	AI can 'same-ify' human expression — can some brains resist its pull?
원문 URL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0781-9
출처/발간일	Nature News / '26.3.16.

- ✦ 인간이 AI를 훈련시키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LLM)이 인간의 글쓰기 방식과 추론, 심지어 정치적 견해까지 동화시키며 사회 전체의 사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집단적 획일화(Homogenization)' 현상이 관측되고 있음.
 - **문체적 다양성 감소** : ChatGPT 출시 이후 온라인 게시물, 뉴스,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이 AI의 정제된 글쓰기 스타일을 모방하게 되면서 개별 저자 특유의 독창적인 문체적 특징이 과거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함
 - **인지적 동화 현상** : 사회정치적 쟁점(예: 사형제)에 대해 AI 비서와 협업하여 글을 쓴 실험 참가자들은 AI가 제시한 논리에 무의식적으로 설득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AI의 편향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동화 현상을 막지 못함
- ✦ AI의 활용이 과학적 창의성과 탐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구적 편리함이 오히려 연구자들의 시야를 좁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
 - **연구 범위의 국한** :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학자들이 비사용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좁고 제한적인 기존 연구 분야에 매몰되는 경향이 발견됨. 이는 AI가 학습 데이터 내의 '주류적 관점'을 우선시하며 발생하는 창의적 탐색의 위축 결과로 해석됨.
- ✦ 다만, 이러한 획일화에 대한 인간의 저항적 움직임과 기술적 해결책도 동시에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AI 시대에 '인간 고유성'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고유성의 강화** : 일부 사용자는 AI의 평이한 문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독특하고 실험적인 표현 방식을 발전시키는 등 정체성 보호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

- **다양성 설계** : 단일한 표준 답변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다층적 AI 페르소나'를 설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인종적 획일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 AI는 개인의 글쓰기를 돕고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잃게 만드는 '집단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 우리가 AI의 편리함에 기대어 스스로 비판적 사고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함.



(이미지 출처 : https://media.nature.com/lw767/magazine-assets/d41586-026-00781-9/d41586-026-00781-9_52163000.jpg?as=webp)

10

OpenAI와 미 국방부(Pentagon)의 AI 계약 논란,
전장 한복판으로 들어간 인공지능

제목	Where OpenAI's technology could show up in Iran
원문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6/03/16/1134315/where-openais-technology-could-show-up-in-iran/
출처/발간일	MIT Technology Review / '26.3.16.

- ✦ OpenAI가 최근 미 국방부와 자사 AI 기술을 군사 기밀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란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간 기술 기업들이 고수해온 윤리적 레드라인이 국가 안보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 윤리적 선언의 한계 : 샘 알트먼은 자율 살상 무기나 국내 감시에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공언했으나, 실상은 국방부의 매우 느슨한 자체 지침을 따르는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됨
 - 전략적 동기 분석 : 막대한 AI 모델 훈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원 확보와 더불어, 중국과의 안보 경쟁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이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음
- ✦ 전장 전면으로 도입되는 OpenAI의 생성형 AI는 기존의 정보 분석 시스템인 '메이븐(Maven)[기술동향 6번 참고]' 위에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레이어로 추가하여, 타격 목표의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전략적 판단을 보조하는 전례 없는 실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타격 의사결정 보조 : 이란 분쟁 등 실전 상황에서 인간 분석가가 입력한 표적 리스트를 바탕으로 군수 물자 위치, 기상 정보 등 방대한 텍스트·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최적의 타격 우선순위를 제시함.
 - 검증의 딜레마 : 국방부는 '인간의 최종 검토(Human-in-the-loop)'를 전제로 내세우지만, 생성형 AI의 권고안을 인간이 실시간으로 완벽히 검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검증 과정이 속도라는 AI의 장점을 상쇄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기술적 의구심이 존재함.
- ✦ 공격적인 타격 지원 외에도, 국방 기술 기업 '안두릴(Anduril)'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의 드론 공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 구축에 AI 모델이 핵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래티스(Lattice)** : 안두릴의 인터페이스인 '래티스(Lattice)'에 OpenAI 모델을 결합하여, 병사들이 자연어로 방어 시스템에 직접 질의하고 위협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음.
- **명분의 타협** : OpenAI는 드론 방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어용 기술'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자사 윤리 정책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격과 방어의 경계가 모호한 현대전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 또한 미 국방부의 전방위 AI 플랫폼 'GenAI.mil'에 합류함으로써 계약 관리, 물류 최적화, 정책 문서 초안 작성 등 군의 방대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AI가 현대 국방 시스템의 운영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 ✦ OpenAI의 이번 행보는 AI가 단순히 후방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적 타격 결정부터 전술 방어, 서류 작업에 이르기까지 현대전이 수행되는 모든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핵심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기술 기업이 내세우던 윤리적 경계가 국가 안보 및 군사적 수요와 어떻게 타협하고 있는지, 그 한계와 위험성을 시사함.

발간일 : 2026.03.26.

AI TREND
